

여수 돌산 연안에 서식하는 해삼, *Stichopus japonicus*의 난발생 및 유생사육

김용구, 윤호섭, 라성주, 김윤설, 박일웅, 최상덕

여수대학교 수산생명과학부

서 론

해삼(*Stichopus japonicus*)은, 순수목(Aspiodchirotida), 돌기해삼과 (Stichopodidae), 돌기해삼속(*Stichopus*)에 속한다. 해삼은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종정도가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4과 14종이 서식하며 이 중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돌기해삼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해삼의 어업 생산량은 1983년에 3,966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1991년에는 2,025톤, 1998년에는 1,439톤의 생산량을 보이다가 2001년에 900톤으로 급격히 감소하는등 남획에 의한 자원감소가 극심하여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해삼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의 경우 형태, 생태 및 양식 등에 관한 종합적 연구(崔, 1963)와 해삼의 채란법에 대한 연구(石田, 1979), 인공 종묘생산을 위한 유생 사육실험(山本, 1981) 및 새끼해삼 사육에 관한 연구(山本, 1985)등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연구 보고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에 서식하는 해삼의 효율적인 인공 종묘생산을 위한 기초지식을 얻고자 난발생 및 유생의 생존율에 미치는 환경요인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된 수정란은 2004년 5월에 산란유발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자연수온(15°C)에서 수정하여 3회 세란 후 $100\mu\text{m}$ Muller gauze로 걸러 난의 크기가 $100\mu\text{m}$ 이상인 것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수거된 수정란은 $10\mu\text{m}$ Housing filter로 여과된 해수를 30ℓ 원형 FRP 수조에 채우고 수정란을 수조바닥에 한 층으로 고르게 수용하였다. 각각의 30ℓ FRP 수조는 자연해수가 흐르는 수조에 넣어 기온차에 의한 수온변화를 최소화 하였다. 해삼유생의 먹이로는 *Chaetoceros gracilis*, *Pavlova lutheri*, *Isochrysis galbana*를 혼합하여

사육초기에는 10,000cells/ml, 성장함에 따라 최고 50,000cells/ml까지 섭이량을 보아가면서 먹이량을 증가시켜 공급하였다.

결과 및 요약

해삼의 난 발생단계 및 소요시간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발생온수온 15°C에서 이루어 졌으며 만능투영기(Nikon V-12A)에서 관찰되는 유생의 50%이상이 변태 하는 시점을 발생시간으로 하였고 수정난의 크기는 평균 150 μm 였다.

Table 1. Development of *Stichopus japonicus* under water temperature of 15°C

Stages	Elapsed time after fertilization	Size (Egg and length)
Fertilized egg	0	150 μm
2 cells	1 hr. 20 min.	
4 cells	2 hr. 10 min	
8 cells	2 hr. 50 min	
16 cells	3 hr. 40 min	
Blastula	14hr. 30 min	223 μm
Gastrula	23 hr	
Auricularia	3 day	458 μm
Doliolaria	11 day	652 μm
Pentactula	13 day	379 μm
Young pelagosphaera	21 day	340 μm

참고문헌

- 崔相, 1963. ナマコの研究. 海文堂. 東京, 57-60.
 石田雅使, 1979. ナマコの種苗生産. 福岡試験農場研究 8 : 63-75.
 山本 翠, 1981. ナマコの幼生初期飼育について. 山口県内海水産試験事業報告
 8号, 51-62.
 山本千裕, 1985. ナマコの養殖に関する基礎研究-II. 福岡試験農場研究集,
 113-116.

*Corresponding author: choisd@yosu.ac.kr